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4~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쉘마라 부르는 율법의 대강령으로 이스라엘이 40 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야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와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한 2 세대를 향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본문은 일명 '쉐마'(Shema)라 불려지는데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하는 구절입니다. 쉘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1.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녀에게 인간의 삶 중에 절대적인 관심사와 일시적인 관심사에 대해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 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일시적인 관심사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 뿐이니 즐기자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쾌락을 쫓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를 얹고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신앙 중심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절대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부자나 나사르가 죽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줌의 흙으로 사라지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영생이나 영벌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오직 영원한 삶에

절대적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자녀들이 세상 지식이나 공부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결과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영생을 갖지 못했다면 그 좋은 실력 그 많은 능력 어디에다가 사용하겠습니까?

**2.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자녀를 교훈 할 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교훈과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인 성수주일하고 십일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선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늙을 때까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그 영혼이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 58:13)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 58: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일조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죄의 울무에 걸리는 것은 욕심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수입 중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탐욕을 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고 부귀영화만 추구하면 자녀들이 믿음의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가난해도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앞에서 인생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 3.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저자 Wilkinson 은 현대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위험모형

-알아서 크겠지[의식주만 제공하면 때가 되면 추수: 농업형]

-잘 부탁드립니다[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선생, 학원, 학교, 교회]

-뭐든지 최고[돈으로 만 키운다: 최고 수준]

-미안형[바빠서 같이 있지 못해 미안해서 해달라는 것 다해 준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는 질문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님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대답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니다. 자녀를 때려서도 안되고 엄하게 다스려서도 안된다. 성선설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므로 잘 개발하면 때리지 않아도 큰소리 치지 않아도 된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부패하다. 그러므로 자식을 징계해야 합니다. **(잠 13: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하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부족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두 아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너의 두 아들을 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우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들 마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잠 29: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마지막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언제나 그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먼저 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다면 유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능한 것을 언제나 게으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무능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보다는 맡겨진 일에 대해 불성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고전 4:2)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결과 정직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의 삶이 밝아 질것이고,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짓되고 불결한 삶을 살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순결과 정직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나눔의 시간

1.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바랍니다.
2.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3. 자녀가 예수 모르고 하버드대학 들어가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쁘니까?
4. 자녀를 징계하는 편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징계합니까?